

## 증권 디아제스

한국투자증권  
노녹인 ELS 50억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8일까지 홍콩H지수(HSCEI), 나케이225, 유로스탁스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UE ELS 9912회 노녹인 파워스텝다운형'을 총 50억 한도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상품으로 6개월마다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92%(6개월, 12개월), 87%(18개월, 24개월), 82%(30개월) 이상이면 연 6.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약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점의 모든 기초자산 가격(종가 기준)이 최초기준가의 60% 이상이면 18.0%(연 6.0%)의 수익이 지급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만기 기초자산 하락률 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조건 불충족시 원금손실률 -40~-100%).

/김문호 기자



## 대주주 적격성 심사 '깐깐'... 증권사만 '뻘뻘'

SK證·하이투자證 M&A 위기  
DGB금융지주 회장 의혹 탓  
당국, 하이투자증권 매각 제동

금융당국의 깐깐해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증권사들의 '새 출발'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SK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인수합병(M&A)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는 여전히 담보상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발목이 잡혀 인수합병이 자체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DGB금융지주에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서류를 보완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부실한 서류 내용을 지적했지만 사실 자회사 편입심사를 보류하기 위해서라는 게 업계 전론이다.

금융당국이 DGB금융지주의 하이투

자증권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박 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때문이다. 현재 박 회장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대구은행 채용비리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만약 박 회장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가 대구은행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지주의 증권사 인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기준 잣대가 엄격해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DGB금융지주는 하이투자증권 실사를 통해 2월 중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고,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인수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서류 부실을 이유로 심사를 미루게 되면서 3월 중 자회사 편입 계획은 어렵게 됐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DGB지주에게 자료를 보

완하라고 한 수준이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이 쉽게 무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케이프투자증권 역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SK증권 인수의 발목을 잡았다. 금융감독원은 케이프컨소시엄이 SK증권 지분 인수를 위해 구성한 PEF(사모투자펀드)에 케이프투자증권의 지분이 들어간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권사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이나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 조항이 근거다. 이에 따라 케이프 측은 케이프투자증권을 PEF에서 제외하는 등 인수 구조를 재구성한 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투자 역시 하나UBS자산운용 인수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후 심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삼성증권은 금융당국이 대주주 요건을 폭넓게 해석한 탓에 초대형 투자은행

(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인가가 보류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증권의 최대주인 삼성생명의 지분 0.06%를 보유해 사실상 대주주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해석은 금융당국의 뜻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임원이나 이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며 단순히 소유권만 가진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무관하다"며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의 형사처벌 유무가 대주주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 것은 감시 비용을 높이고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임자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KB증권

## 투자자문 플랫폼 개시

KB증권은 투자자문사들의 자문부터 상품매매,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가능한 '투자자문 PLAZA'자문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KB증권은 케이피아이(KPI)투자자문을 포함한 5개 자문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일반 고객들이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통해 원하는 투자성과를 이를 수 있도록 '투자자문 PLAZA'를 선보였다.

'투자자문 PLAZA'를 통해 고객들은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자문상품 검색이 가능하며, 계좌개설부터 계약, 매매, 사후관리까지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 하나금융투자

## 파생결합상품 5종 모집

하나금융투자는 원·달러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DLS 등 파생결합상품 총 5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미국달러(USD)와 한국원화(KRW)간의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연 3.65%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DLS635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2.5년이고 3개월마다 총 10차례 평가하여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홍콩지수(HSCEI), 유럽지수(EuroSTOXX50), 일본지수(NIKKEI 225)를 기초자산으로 연 6.3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8062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모집은 각 30억원 한도로, 상품가입은 최소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 기관 전유물 대체투자, 개미에도 투자기회 제공

한화자산운용 '글로벌리얼에셋펀드'  
중수익·중위험 상품... 부동산 등 투자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가운데 채권·주식과 상관계수가 낮은 중위험·중수익의 상품이 나왔다. 대체(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한화자산운용의 '한화글로벌리얼에셋펀드'다.

한화자산운용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상품 출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프라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화글로벌리얼에셋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실물투자자산은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주식 대비 변동성은 낮고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게 장점이다. 채권, 주식과 상관계수는 0에서 0.7 정도로 투자포트폴리오에 대체투자를 추가하면 분산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국 기관들은 최근에 실물 및 대체자산 투자를 늘리고 있다.



현재 국내 연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11~14% 수준에 불과하지만 향후 대체투자 규모를 늘릴 것으로 밝히고 있어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욱 한화자산운용 솔루션사업본부 매니저는 "기관투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대체투자를 펀드라는 플랫폼을 통

해 개인이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기관들이 투자하는 대체자산은 인프라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실물자산, 통수투자기법 등을 이용한 헤지펀드, 구조화상품 등이다. 한화글로벌리얼에셋펀드는 인프라와 부동산에 주로 투자한다.

펀드는 실물자산을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에 약 50%, 선순위 증권에 약 30%, 채권에 약 20%를 투자하고 있다. 선순위증권이란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달된 자산군으로 일반주식보다는 배당이 높고의결권은 없는 증권을 말한다.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약 50%를 차지하며 유럽이 12.5%, 캐나다가 14%고, 싱가폴 호주 등에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 자산별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조절한다. 현재는 미국 쪽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으로 미국의 비중을 과거(약 78%)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한화글로벌리얼에셋펀드는 글로벌 대체투자 자산운용사인 누빈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 20여개국 170여개의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

박찬욱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40~50개를 선정하는 펀드 포트폴리오와 달리 다양한 국가와 종목을 분산해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극대화 시켰다"고 밝혔다.

/손임자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현대건설, AI 아파트시대 앞장선다

## KT와 음성인식 서비스 MOU 체결

현대건설이 인공지능아파트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6일 KT와 '신개념 음성인식 인공지능 아파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개념 인공지능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이스홈(음성인식) 플랫폼과 KT의 기가지니(음성인식) 플랫폼 간의 연동 서비스로 힐스테이트 입주민에게 모든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입주민은 안방, 거실, 주방 등에서 보이스홈(음성인식

월패드·스피커·스마트 거치대)을 통해 음성 명령만으로 빌트인 기기(조명·난방·가스·보일러 등)와 사물인터넷(IoT) 가전제품(TV·공기청정기·로봇청소기 등) 제어가 가능하다. 즉,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사물·공간·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돼,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돼 입주민들은 KT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교통정보, 날씨, TV뉴스 등)와 생활서비스(음악, 예약, 생활영어 등) 등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거실 월패드를 통해 KT IPTV도 이용할 수 있다.



실례로 사용자가 현관문을 열면, 자동으로 설정돼 있던 보안 모드가 해제되면서 거실 조명이 켜지고 택배와 방문 문자 정보를 알려준다. 또한 인공지능 비서가 내일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를 음성으로 설명해 주고, 하루 동안 전해진 국내외 주요 뉴스를 TV를 통해 알려 주기도 한다.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공기청정기와 세제기를 동작시킬 수도 있다. 안방 침대에 누워선 '굿나잇' 한마디에 세대 조명과 TV를 끄고 즐겨 듣는 음악이 내일 기상 알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